

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돌입

광주공장서 상견례 ... 월내 타결 목표 주 3~4회 교섭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이견차

기아자동차가 7일 광주공장에서 노사 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노사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 이견차가 커 계획대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공장 연수원에서 상견례를 하고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는 이상웅 사장 등 19명이, 노조 측에서는 김성락 지부장 등 19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상견례에서 경영 현황과 임금요구안에 대해 각각 설명한 뒤, 진정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노사는 8일 광주공장서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며, 다음주부터는 매주 3~4회씩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할 방침이다.

올해 임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611원(기본급 대비 8.6%),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라인수당 인상(A등급 1만원, B등급 5000원), 유해수당 1만원 신설, 본인수당 6만 2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 주간 연속 2교대 도입과 현행 시급제의 월급제 전환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현행 '주야 2교대제'가 심야노동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는 근로자를 2개 조로 나눠 A조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B조는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조별로 근무시간 이후에는 2시간씩의 잔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1일 10시간이 된다.

노조는 이같이 심야·새벽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A·B조 모두 주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고 있다. 밤을 새는 지금의 근무형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주간 연속 2교대는 잔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감소가 필수적이다. 사측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다.

노조가 요구한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사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2조2543억원을 기준으로 30%를 산정하면 6763억원 가량인데 이를 전체 직원 3만 2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된다는 주장이다.

남철원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은 "사상 최대 성과(지난해 매출 23조

원) 공유와 조합원 건강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이 올해 임협의 최대 목표다"고 말했다.

지난해 20년만에 부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기아차가 올해도 부분규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지역 경제계 및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48만3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조의 파업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엔텍합에 보증금 반환

채권단 의견접근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엔텍합에 인수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우일렉 채권단 관계자는 7일 "엔텍합에 보증금을 내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 전자회사 엔텍합은 지난해 4월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채권단은 엔텍합이 인수자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5월 말 협상을 종료했다.

채권단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와 매각 협상에 나서자 엔텍합은 채권단을 상대로 대우일렉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채권단은 엔텍합의 의도가 인수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각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이다.

엔텍합이 대우일렉에 갚아야 할 외상매출금 3000만 달러(약 320억원)를 갚지 않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엔텍합이 인수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협상이 끝난 만큼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채권단 사이에서 나온다.

채권단은 또 차순위 협상자 일렉트로룩스와 협상도 없던 일로 하고 재

입찰을 통해 매각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대우일렉의 유동성이 좋지 않다"며 "유동성부터 해결하고 재입찰은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과 업계에서는 재입찰이 진행되면 작년 한국회사로는 유일하게 본입찰에 참여했던 동양매직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우일렉의 최대주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지분 57.42%를 갖고 있다. 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5.37%, 외환은행 6.79%, 신한은행 5.75%, 서울보증보험 5.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치과용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중기청 과제발굴연구사업 선정

테크노파크 타이타늄센터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특수합금부품개발지원센터와 대한치과기재협회가 공동으로 신청한 '치과용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사업'이 중소기업청 주관 과제발굴연구회 사업으로 선정됐다.

타이타늄센터는 앞으로 2년 동안 총 5억원의 기술개발관련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치과용 부품소재 분야는 매년 수요가 급증하는 성장산업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을 완제품 형태로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사업 선정으로 치과용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겨 치과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치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중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치과산업 발전과 관련기업들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한화케미칼 1조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한화케미칼과 1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케미칼은 오는 2013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연산 1만t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한화케미칼은 각종 행정절차와 준비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올 연말 작공에 들어가 201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는 한화케미칼의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은 "여수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기에 풍부한



박준영 전남지사와 홍기준 한화케미칼 사장 등이 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한화케미칼(주)이 여수국가산업단지에 1조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 제공>

인프라를 갖춰"면서 "전남도와 여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

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세화아이엠씨’ 728% 매출신장

전국 천억벤처기업 중 1위

광주·전남 7개 업체 진입

광주지역 금융제조업체가 1000억 원대 매출 벤처기업 가운데 전국 최고 매출신장율을 기록해 화제다.

7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주)세화아이엠씨(회장 유희열·사진)가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진입과 함께 매출신장부문 최고기업상을 차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매출액 120억여원에서 지난해 1010억여원으로 1년 사이에 728.4%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벤처 천억 기업 315개 가운데

최고 매출 신장율이다.

이같은 매출 증가는 지난해 1월 (주)세화기계와 (주)마스터텍 합병 효과와 함께 중국·인도 수출 증가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자동차타이어용 몰드를 제조하는 세화아이엠씨는 몰드분야에 대한 과



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제작설비의 첨단화를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베트남·미국 등 해외에도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희열 회장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아 지역 경제계를 이끌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매출 벤처천억기업은 전국 315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며, 광주·전남에서는 세화아이엠씨를 비롯해 디케이산업(주), 하남전기(주), 뉴모텍(주), 케이씨(주), 재원산업(주), 디에스알제강(주) 등 7개 업체가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흥S-클래스’ 801가구 분양



중흥건설, 하남 2지구에

단지내 실내수영장 갖춰

중흥건설(대표이사 정창성)이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하남2지구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 801가구를 8일부터 분양한다.

<조감도>

하남 중흥S-클래스는 광주지역 최초로 단지 내 실내 수영장을 선보인다. 대규모 커뮤니티센터에 25m 4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유아풀, 피트니스룸, 골프연습장 등 건강생활을 위한 입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2개동,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전용면적 84㎡(33평)로 구성되고, 전 가구 채광 및 통풍이 좋은 4-베이 특화설계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스템, 첨단 홈네트워킹시스템, 주차관계시스템, 원격감침, 디지털CCTV 등 첨단아파트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광주의 중심인 삼구지구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어등산을 비롯한 근린공원이 자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형마트와 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청약 일정은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14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사거리 메리어드 웨딩을 옆에 8일 개관한다. 문의 062-364-0001.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초복엔 삼계탕 드세요”

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오는 14일 초복을 대비해 삼계탕용 생닭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생닭 3마리를 1만원(일 100명 한정)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2011 규제발굴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광주본부세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7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 수출입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민원인의 여러 애로사항을 종합해 분야별로 규제를 발굴함으로써 보다 알찬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공모됐다.

또한 공모자가 불필요한 규제와 이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한 후 규제개혁 평가단과 토론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한층 심도 있고 현실적인 결과물 도출에 기여했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규제발굴 탐사단’,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등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면서 세관직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을 위해 매월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맥주, 여름엔 날씬하게 즐기자”

오비맥주 ‘카스 라이트’ 광고 선보여

“맥주 때문에 살진다고 생각한다면, 올 여름 맥주는 날씬하게 즐기자” 오비맥주가 오는 8일 케이블 TV에 온에어 예정인 ‘카스 라이트’ 광고 시리즈에서 개그맨 유세운을 모델로 발탁, 날씬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비법을 담은 ‘Light Bros’ 3편을 동시에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홈 파티’편, ‘사회인 야구’편, ‘단체 MT’편 등 총 3편으로 각 45초 분량으로 짧은 스토리를 담아 프로그램의 느낌을 주는 브랜드드 필러(Branded Filler) 마케팅을 도입, 유세운만의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다양한 장면을 새로운 형식의 광고로 담아냈다.



오비맥주 송현식 마케팅 상무는 “젊고 활기찬 감성으로 젊은 층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카스 라이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NH채움카드 휴가철 혜택 다채

농협 전남지역본부, 8월말까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NH채움카드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NH채움카드는 농협 판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신도불이매장, NH쇼핑)에서 채움데이(매월 5·15·25일)에 5만원 이상 결제시 채움포인트 5% 추가 적립하고,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발품만 잘 팔면 전남지역 63개 판매장에서 최대 50% 할인된 한우고기 특별할인 보너스도 챙길 수



있다. 또 전국 스과 및 테마파크에서 최고 50% 현장 할인, 금호리조트·제우스위스호텔·용평리조트 등 전국 유명 콘도에서 제휴 할인도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180.59 (+9.40)
▲코스닥지수	495.52 (+2.58)
금리 (국고채 3년)	3.79% (0.00)
▲원·달러 환율	1064.10원 (+0.7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